

지역 소식 통

고창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고창군이 지난 7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258필지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공음면 장동지구·상평지구·북흥지구, 신탄면 평월지구·용추지구의 총 1258필지를 대상으로 심의했다.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의 경계 협의의를 통해 점유 현실경계, 합인경계 등 새롭게 설정된 각 토지의 경계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됐다.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와 면적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토지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4월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부안군이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지난해 소득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위탁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우편 제출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사업장이 지자체 두 곳 이상에 위치하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나눠 신고해야 한다.

안분율이란 법인이 여러 지역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종업원 급여나 자산 규모 등을 기준, 납부할 세액을 배분하는 비율을 말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벚꽃축제 15만 인파 속 성료

4·6일 프로그램 · 먹거리 · 체험거리 ‘다채’ ... 지역경제 활력

정읍시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정읍천과 벚꽃로 일원에서 개최한 2025 정읍벚꽃축제가 사흘간 15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웰니스와 힐링이 어우러진 축제였다.

‘낭만벚꽃, 낭만정읍’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최근 관광 트렌드로 주목받는 ‘웰니스’를 적극 반영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원과 위로, 낭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는 축제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정읍시립농악단 공연을 취소하고, 개막식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행사 내내 이재민과 유가족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축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축제장 곳곳에 마련된 간식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



20개소, 농특산물 판매장 5개소는 축제 기간 동안 총 1억 8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인근 음식점과 카페 등도 관광객들로 연일 북적이며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플로깅 프로그램에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참여,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통해 자연과의 공존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웰니스 프로그램의 인기도 눈에 띄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캠페인을 비롯해 꽃차 명상, 요가 심인볼 등 심신의 안정을 위한 체험들이

다양한 연령층의 발길을 이끌었다. 시가 특별히 준비한 정읍 대표 치유먹거리 ‘지황’을 활용한 체험 부스도 호응을 얻었다.

공연 프로그램 역시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황가람을 비롯해 정읍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가수 김용민, 선우혜정이 참여한 무대는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었고, 정읍 지역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의 공연도 수준 높은 무대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주사에서 축제를 찾은 강 모씨는 “벚꽃이 절정이라 풍경도 훌륭했고,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하루 종일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았다”며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축제 기간에 맞춰 벚꽃이 아름답게 핀데다 다채롭게 준비한 프로그램과 잘 어우러져 더 많은 분이 찾은 듯 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여성 · 청년 목소리 담는다

정읍시, 여성 · 청년 위원회 인력풀 5월 30일까지 공개 모집

정읍시가 시정에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위원회 인력풀’을 오는 5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여성과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넓혀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인력풀’은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사전에 모집·관리하는 인력은행 제도다. 기존 위촉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모집은 여성과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지정해, 정제된 위원회 구성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경제·기업, 교육, 문화관광, 체육, 교통, 노동, 건설, 환경, 농축산, 과학기술, 정보통신, 사회복지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활동 경험을 가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력풀 운영기간은 신청

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며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시민마당’ 또는 이메일,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시는 현재 12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과 청년 위원 부족과 신규 위원 유입이 적어 중북 위원 재위촉 사례가 많았다. 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2023년 인력풀 제도를 도입해 72명의 인력을 확보했고, 이 중 29명을 실·과·소 소관 위원회에 신규 위촉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모집을 계기로 여성 위원 참여율을 현재 37%에서 40%로, 청년 위원 참여율을 현재 목표치인 15% 이상을 꾸준히 유지·확대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여성과 청년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자 한다”며 “위원회 인력풀은 행정에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축산악취개선 해결 지역협의체 가동

정읍시가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추진을 앞두고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한 지역협의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는 최근 축산악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 축산악취개선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전략 수립과 더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악취 저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축산악취개선 지역협의체는 정읍시를 비롯해 축산환경관리원, 순정축협,

생산지단체, 환경단체, 주민단체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우수 사례 지역을 방문,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저감대책을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악취 개선 현황과 향후 계획, 공모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기관·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특히 갈등 완화와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제시되며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5년 부안군민대상 수상자 4명 최종 선정

산업 이화자 · 공익 오세준 · 문화 박선옥 · 애향 이진수씨 수상 영예... 5월 2일 마실축제 개막식서 시상

부안군은 지난 7일 부안군민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산업 · 공익 · 문화 · 애향 등 4개 분야 2025년 부안군민대상 수상자 4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안군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군민의 명예를 높이고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군민을 발굴해 그 공적이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분야별로는 산업분야 이화자(행안면)씨, 공익분야 오세준(부안읍)씨, 문화분야 박선옥(부안읍)씨, 애향분야 이진수(서울 강북구)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산업분야 이화자씨는 부안군 향토음식 제 호로 지정된 음식점을 운영하며 부안 음식관광 발전에 기여하고 각종 음식경연대회에 참가해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한편 식품원료 90%를 부안 농특산물로 활용해 지역농업 발전을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익분야 오세준씨는 부안군의원 재



공익 오세준



문화 박선옥



산업 이화자



애향 이진수

보유자로 인정받아 우리의 전통국악 전승에 노력한 공이 높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애향분야 이진수씨는 고향 발전을 위해 총 33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종합 레저스포츠 융합 제조 공장인 (주)모터뱅크 신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했으며 상서면 재경향우회 회장을 역임해 2010년 상서면민의 날 최초 개최, 장학금 기부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등 고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5년 부안군민대상 시상식은 오는 5월 2일 제12회 부안마실축제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이 주어지고 부안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인 부안군민대상에 선정된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도심 속 월곡 숲길 2.7km 정비완료

고창군은 고창읍 월곡아파트 뒷편 주차장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약 2.7km 구간의 월곡숲길을 정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숲길은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도심 주변 자연 공간이다. 이번 정비사업을 계기로 전방 숲길과 더불어 지역의 대표적인 숲길로 거듭나기 위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산책 코스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자메트, 안내판, 등위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금정사지에는 나무계단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활권 내 녹지공간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신 고창군 산림복지과장은 “철저한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물질 사용 금지와 산지정화활동 등 산림 보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